

農巖 金昌協의 祭文에 나타난 문장기법 연구

吳 錫 環*

<目次>

- | | |
|------------|---------------|
| I. 序言 | III. 祭文의 문장기법 |
| II. 祭文의 성격 | IV. 結論 |

<국문 초록>

사람이 지은 문장 가운데에서 가장 심금을 울리는 글은 죽은 사람의 영전에 고하는 애제류(哀祭類)의 글일 것이다. 애제류의 문장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이의 영혼에게 글로써 추모하고 위로할 수 있는 문류(文類)이기에 내용이 슬프고 처절하지 않은 것이 없다.

고대의 제문은 흠향을 고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는데, 중세 이후의 제문에는 언행을 아울러 찬미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을 내려오게 함은 여러 수식을 발하는 것보다는 진실에 힘써야 하니, 정성과 슬픔이 그 본질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농암 제문의 대표작으로 제시한 작품들은 모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과 스승, 그리고 형제에 관한 글인 만큼, 농암이 심혈을 기울였으리란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슬픔에 젖어들게 하고 있다.

문장기법에서 농암은 먼저 ‘품고 드러내지 않는’ 기법을 사용하여 질박한 표현으로 사실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서 더욱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문장의 기세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같은 구

*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초빙교수 / gosan-man@hanmail.net

절을 겹치거나 중간 중간에 삽입하여 억양을 반복시키고 있다.

세 번째로는 ‘말과 뜻이 하나를 이루는’ 기법을 사용하여 형식과 내용에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게 함으로써 문장을 생동감 있고 확연하게 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사물에 뜻을 담는’ 기법을 사용하여 물상(物象)과 정의(情意)가 융합된 명려(明麗)하면서도 심원한 독특한 경계를 구성하였다.

산문의 일반적인 기능은 실용에 있다. 특히 제문은 죽은 사람의 영전에 고하는 글이다. 따라서 그 주안점은 당연히 추모와 슬픔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문장가의 아름답고 화려한 글 솜씨가 있더라도, 내용에 슬픔이 결여돼 있거나 죽은 자와 산 자로 하여금 절실한 슬픔을 느끼게 할 수 없다면, 이는 죽은 글이다. 그렇다고 노골적이고 사실적으로 슬픔을 표현한다면 이는 글이 천박해질 뿐이다.

농암의 제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철저히 슬픔에 그 주안점을 두었고, 다양한 문장기법을 통하여 슬픔에 대한 노골적이거나 사실적인 표현이 전혀 없으면서도 산 자와 죽은 자가 하나가 되고, 함께 흐느끼며 슬픔을 주체할 수 없게 한다.

【주제어】 정, 반복, 슬픔, 논리, 변화

I. 序 言

본고는 조선 후기 주로 肅宗年間에 활동했던 農巖 金昌協(1651-1708)의 문학작품 중, 祭文에 대한 작품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문장기법과 그 우수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農巖의 祭文에 대한 연구는 이미 拙稿 「農巖의 哀祭類 散文文學 小考」¹⁾에서 始作되었다. 그러나 『麗韓十家文鈔』에 選集된 「黃柱河哀辭」와 「亡

1) 吳錫環, 「農巖의 哀祭類 散文文學 小考」, 『漢文學論集』 第15輯, 槿域漢文學會, 1997.

弟再葺祭文」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農巖 哀祭類 散文의 우수성과 독특함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

1998년에 발표한 拙稿 「農巖 哀祭類 散文文學 研究」²⁾에서는 『麗韓十家文鈔』와 『東文集成』에 수록된 작품 모두를 다루었다. 이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의 哀祭類 散文의 우수성과 독특함이 드러나는 상당수의 작품을 考察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哀祭類 散文을 함께 다루다보니, 哀辭가 가지는 독특함과 祭文만이 가지는 독특함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고, 哀辭만의 우수성과 祭文만의 우수성도 상당 부분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게 되었다. 따라서 哀辭는 哀辭대로 祭文은 祭文대로 따로 다루어, 문장의 분석과 문장기법의 고찰을 통해 그 문장만이 가지는 독특함과 우수성을 고찰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우선 祭文만을 다루어 農巖 祭文만이 가지는 독특함과 우수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本稿에서는 農巖의 祭文中, 『麗韓十家文鈔』와 『東文集成』에서 選한 作品들만을 다루려한다. 이는 農巖이 지은 64 개의 祭文을 모두 다루기에는 內容상으로도 尙大하거니와, 形式이나 技法 상으로도 비슷한 作品들을 모두 다루는 것이 無意味하므로, 그 代表的 作品을 뽑아 다루는 것이 適合하고, 또 農巖 散文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우수한 作品들만을 다루는 것이 더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麗韓十家文鈔』는 원래 滄江 金澤榮이 麗韓의 先達의 文章 중에서 우아하고 바른 것을 모아서 「麗韓九家文」이라 이름 짓고, 그의 벗 王性淳에게 주었는데, 高麗에서는 金富軾과 李齊賢의 文章을 選하고, 朝鮮에서는 張維와 李植과 金昌協과 朴趾源과 洪奭周와 金邁淳과 李建昌의 文章을 選하였다. 여기에 敬菴學人 王性淳이 增刪을 加하고 金澤榮의 文章을 보태어 『麗韓十家文鈔』을 완성하였다. 王性淳은 『麗韓十家文鈔』의

2) 吳錫環 「農巖 哀祭類 散文文學 研究」, 『한국고문의 이론과 전개』, 태학사, 1998, pp.409-452.

序에서 滄江 金澤榮을 稱讚하여 “滄江 金선생이 崧陽[개성]에서 우뚝히 일어나 古文으로서 천하에 이름을 내니, 그 조예의 깊음과 지식의 정밀함은 이른 바, ‘포정의 눈에는 온전한 소가 없다.’는 경지이다.”³⁾라 하였고, 또 “선생의 글이 이미 천하에 성대히 전하여졌으니, 麗·韓의 글을 뽑는 데 있어서는 선생이 그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물며 선생은 李建昌씨와 서로 친했고, 함께 고문을 唱導하여 한때 韓·柳唐의 문장가 韓愈와 柳宗元의 지목을 받았으니, 피차 하나라도 빠질 수 없다.”⁴⁾라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보면, 滄江 金澤榮의 古文을 보는 眼目과 고문가로서의 위치를 굳이 糾明하고 證據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東文集成』은 朝鮮朝 末葉의 學者인 宋伯玉이 우리나라의 歷代 文章을 뽑아 엮은 選集으로, 漢文學의 傳統的 雰圍氣에서 살던 古人의 眼目에 依하여 作家와 作品이 選定된 까닭에 그 水準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는 원집에 高麗의 牧隱 李穡으로부터 朝鮮의 帖畢齋 金宗直, 簡易 崔岵, 月沙 李廷龜, 象村 申欽, 澤堂 李植, 谿谷 張維, 眉叟 許穆, 藥泉 南九萬, 息庵 金錫胄, 農巖 金昌協, 東谿 趙龜命까지 열두 作家를 選하였고, 續集에는 江漢 黃景源으로부터 耳溪 洪良浩, 燕巖 朴趾源, 臺山 金邁淳, 淵泉 洪奭周, 沆菴 洪吉周까지 여섯 作家를 選하였으니, 무려 열여덟 作家를 選한 것이다. 滄江 金澤榮이 비록 宋氏가 본래 문장에 짧고 뽑은 것이 精巧하지 못하다고 하였지만⁵⁾, 韓末의 古文家로 이름이 높은 韓章 錫은 오히려 「祭宋敬山伯玉書」에서 그가 지조가 굳세고 慷慨한 인물이

3) 『麗韓十家文鈔』序, “滄江金先生, 崛起崧陽, 以古文名天下. 其造詣之深, 識鑒之精, 所謂庖丁氏之目, 無全牛者.”

4) 『麗韓十家文鈔』序, “性淳竊自以爲, 先生之文, 已盛傳於天下, 則麗韓之文之選, 先生不居其一, 不可. 況先生與李建昌氏相好, 而同唱古文, 一時有韓柳之目, 彼此不可少一, 是非性淳之責乎?”

5) 林榮澤 所藏 『重編燕巖集』, 「與河晦峰論燕巖文書」. “及四十九歲, 得宋校理伯玉所輯東文十八家, 燕翁文爲一冊. 於是, 始得飫讀, 而輒自喜所私論於碑者爲不妄. 然宋本短於文章, 所選不精, 不足以盡燕翁之長.”

였으며 재주가 뛰어났으나, 세상에 쓰이지 못한 불우한 사람이었다고 개탄하였으며⁶⁾, 「題宋敬山所藏宋儒眞帖後」에서는 “敬山 宋伯玉 선생은 百家의 學術을 널리 공부하고, 書籍을 자기 목숨처럼 看做했다.”⁷⁾ 라 하였으며, 또 「答宋景瑗書」에서는 “足下는 재주가 뛰어나고 의지가 굳세며, 蓄積된 공부가 깊고 創作한 것이 풍부하여 韓愈와 蘇軾을 따라잡을 때까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⁸⁾라 하여 그의 공부가 넓고 깊으며 재주가 뛰어난 것을 칭찬하였으며, 또한 이들 열여덟 작가는 한국 한문학사에서 대표적 고문작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審美眼의 차이에 따라 다소 異見이 있을 수 있겠지만, 作家選定의 공정성과 체계성은 충분히 인정할 만한 選集이라 評價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農巖 散文의 우수작이라고 할 수 있는 『麗韓十家文鈔』에서 選한 「亡弟再葺祭文」⁹⁾과 『東文集成』에서 選한 「祭亡兒文」¹⁰⁾과 「祭靜觀先生文」¹¹⁾과 「亡兒初葺祭文」¹²⁾, 그리고 「祭亡妹文」¹³⁾의 다섯 편만을 다루려 한다.

사람이 지은 글 중에서 가장 心琴을 울리는 글은 죽은 사람의 靈前에 告하는 哀祭類의 글일 것이다. 哀祭類의 문장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이의 靈魂에게 글로써 追慕하고 慰勞할 수 있는 文類이기에 내용이 정성스럽고 슬프지 않은 것이 없다. 죽은 자의 靈魂을 慰勞하고 이별의 아픔과 追慕의 情을 形象化한 글인 만큼 죽은 이가 사랑하는 親族이나 벗이라면 그 내용이 더욱 哀切할 수밖에 없다.¹⁴⁾

6) 韓章錫, 『眉山集』, 「祭宋敬山伯玉文」.

7) 韓章錫, 위의 책, 「題宋敬山所藏宋儒眞帖後」.

8) 韓章錫, 위의 책, 「答宋景瑗書」.

9) 金昌協, 『農巖集』 卷29, 「亡弟再葺祭文」.

10) 金昌協, 『農巖集』 卷30, 「祭亡兒文」.

11) 金昌協, 위의 책, 「祭靜觀先生文」.

12) 金昌協, 위의 책, 「亡兒初葺祭文」.

13) 金昌協, 『農巖集』 卷29, 「祭亡妹文」.

14) 金相洪, 「進士 朴南壽의 哀祭文學 研究」, 『漢文學論集』 第12輯, 槿域漢文學

본고에서 주로 사용한 자료는, 中國 南道 翰墨林書局刊本을 縮小 影印하여 민족문화추진회가 제작하고 민문고가 발행한 『麗韓十家文鈔』와 한국정신문화원의 지원으로 永進文化社에서 影印하여 발행한 『東文集成』과 韓國歷代文集叢書의 일부로 景仁文化社에서 影印하여 간행된 『農巖先生文集』과 민족문화추진회에서 影印하여 간행된 『韓國文集叢刊』 권 161-162에 수록되어 있는 『農巖集』이다.

II. 祭文의 성격

淸나라 姚鼐는 『古文辭類纂』에서 文類를 (1) 論辨類, (2) 序跋類, (3) 奏議類, (4) 序說類, (5) 贈序類, (6) 詔令類, (7) 傳狀類, (8) 碑誌類, (9) 雜記類, (10) 箴銘類, (11) 頌讚類, (12) 辭賦類, (13) 哀祭類로 分類하고 그 중 (13)의 哀祭類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哀祭類는 『詩經』에 「頌」이 있고, 「風」에는 「黃鳥」와 「二子乘舟」가 있으니, 모두 그 시초이다. 楚人の 辭가 지극히 工巧로왔고, 後世에는 오직 韓愈와 王安石이 있었을 뿐이다.¹⁵⁾

姚鼐는 哀祭 文學의 기원을 『詩經』 중 「頌」과 「國風」의 「黃鳥」와 「二子乘舟」로 보았다. 哀祭類의 作品으로는 楚辭가 가장 工巧로왔고, 後世에는 韓愈와 王安石이 있었을 뿐이라고 하였다.

農巖의 作品 중에서 哀祭類에 속하는 것으로는 哀辭 6篇과 祭文 46篇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哀祭類에 속하는 哀辭, 誄, 祭文, 弔文 중에서 農巖의 作品에 나타난 祭文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劉勰은 『文心雕龍』에서 祭文을 독립시켜 說明하지는 않았다. 다만 「祝

會, 1994, p.733.

15) 姚鼐, 『古文辭類纂』, 「序目」, “哀祭類者, 詩有頌, 風有黃鳥二子乘舟, 皆其原也. 楚人之辭至工, 後世惟退之介甫而已.”

盟」條에 祭文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禮法の 祭祀 같은 것은 歆饗를 告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고, 中代의 祭文은 아울러 言行을 讚美하였다. 祭祀함에 아울러 讚美함은 대개 神을 이끌어서 지은 것이다. 무릇 여러 말로 수식을 發하나 神이 내려옴은 진실에 힘씀이니, 修辭는 정성을 세워 부끄러움이 없는 데에 있었다. 祈禱의 방식은 반드시 정성으로서 공경하고, 祭奠의 모범은 마땅히 공손과 슬픔이니, 또한 그 대강이다.¹⁶⁾

古代의 祭祀는 歆饗를 告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는데, 中代의 祭文에는 아울러 言行을 讚美했으니, 神을 이끌어서 지은 것이라 했다. 그러나 神을 내려오게 함은 여러 수식을 발하는 것보다는 진실에 힘써야 하니, 정성과 슬픔이 그 본질이라고 했다.

徐師曾의 『文體明辯』에서는 祭文은 尊親과 벗을 제사 지내는 글이라 했다.

祭文이라는 것은 尊親과 벗을 祭祀 지내는 글이다. 옛날의 祭祀는 歆饗를 告하는 데서 그쳤을 뿐이다. 中世에는 다시 아울러 言行을 讚美하고 哀傷의 뜻을 깃들였으니, 대개 祝文의 변함이다. 그 辭에는 散文이 있고 韻語가 있고 儷體가 있는데, 韻語 가운데에 또 散文과 四言과 六言과 雜言과 騷體와 儷體의 다름이 있다.¹⁷⁾

옛날의 祭祀는 歆饗를 告하는 데서 그쳤을 뿐이었는데, 中世에는 다시 아울러 言行을 讚美하고 哀傷의 뜻을 깃들였다고 하였다.

16) 劉綏, 『文心雕龍』, 「祝盟」, “若乃禮之祭祀, 事之告饗, 而中代祭文, 兼讚言行, 祭而兼讚, 蓋引神而作也. …… 凡群言發華, 而降神務實, 修辭立誠, 在於無媿. 祈禱之式, 必誠以敬, 祭奠之楷, 宜恭且哀, 且其大較也.”

17) 徐師曾, 『文體明辯』 卷61, 「祭文」, “按祭文者, 祭尊親友之辭也. 古之祭祀, 止於告饗而已. 中世以還兼讚言行, 以寓哀傷之意, 蓋祝文之變也. 其辭有散文有韻語有儷體, 而韻語之中, 又有散文四言六言雜言騷體儷體之不同.”

III. 祭文의 문장기법

1. 含而不露 : 품고 드러내지 않다.

마음껏 發散하고 시원스레 힘찬 것은 農巖 산문의 본래 모습이나, 어떤 때에는 白描手法를 사용하여, 뚜렷한 특징이 있는 세밀한 부분을 힘주어 드러내 보인다. 비판을 가하지는 않지만 思想感情의 경향을 스스로 드러나게 했으니, 이것은 굉장히 질박하고 아주 깊이 있는 표현 수법으로 사람들의 美感的 욕구를 최대로 만족시킨다. 이는 寫作技巧가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라야 能熟하게 그와 같이 응용할 수 있다.

農巖은 「祭亡妹文」을 시작함에 있어, 죽음이 되고 귀신이 됨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점점 죽음을 삼고 귀신을 삼는 과정을 통하여 정을 북돋아가고 있다.

오직 세월이 辛酉에 그친 二月 乙酉朔 初二日 丙戌에 仲兄 昌協은 슬픔을 머금고 눈물을 참으며 亡妹 孺人 李氏 부인의 靈에게 이별을 고하여 말한다. 아! 슬프구나. 너를 잃음으로부터 지금 이미 삼 개월이다. 그 처음에는 진실로 아득하고 멍하여 그 죽음 되고 귀신 됨을 알지 못하였더니, 그 이미 斂을 하고 관을 덮음에 이르러, 달을 넘기고 때를 넘음에 미치니, 만사가 또한 이미 다하였고, 이 마음이 또한 쇠하였구나. 그러나 寤寐한 사이에 항상 네가 오히려 있는 것만 같고, 출입할 때에도 항상 너를 혹 만날 듯한데, 그 구하여도 얻을 수 없고, 나아가도 볼 바가 없음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또 돌아서 바라보고 발돋움하여 기다려서, 항상 네가 다시 일어날 것을 생각하였다. 이는 그 어리석은 마음과 망령된 생각에 떠난 사람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잠자는 사람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음이 있다. 이에 지금 술을 만들고 밥을 만들어 너에게 강신하고 너에게 고향하여 너와 더불어 길이 이별하니, 이는 내가 차마 너로써 죽음을 삼고 귀신을 삼아 다시 너에게 바람이 있지 아니한 것이다. 아! 이 어찌 하겠는가?

維歲次辛酉二月乙酉朔初二日丙戌 仲兄昌協 啣哀忍淚 告訣于亡妹孺人李氏婦之靈曰 嗚呼哀哉 自汝之亡 今已三月矣 其始也 固茫茫焉恍恍焉 不知其爲死爲鬼也

及其既已斂而蓋棺 越月而踰時焉 則萬事亦已窮矣 此心亦可以衰矣 然而寤寐之間 常若汝之猶存也 出入之際 常若汝之或值也 至其求之而不可得 卽之而無所見 而猶且眇望企竚 常意汝之復起也 是其癡心妄想 有若候行者之反 而俟寢者之覺也 乃今爲酒爲食 酌汝哭汝 以與汝永訣 是余忍以汝爲死爲鬼 而不復有望於汝也 嗚呼 此何爲也¹⁸⁾

農巖은 처음 亡妹를 잃었을 때에는, 진실로 아득하고 멍하여 그 죽음이 되고 귀신이 됨을 알지 못하였고, 이미 斂을 하고 관을 덮고 달이 지나고 때를 넘음에 이르러 이미 萬事가 다하고 마음이 쇠하여졌어도, 오히려 寤寐한 사이에 누이가 살아 있을 것만 같으며 출입함에도 만날 것 같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구하여도 얻을 수 없고, 나아가도 볼 수 없음에 이르러서도 또한 돌아서 바라보고 발돋움하여 기다려서 항상 다시 일어날 것을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도 이것이 어리석은 마음과 망령된 생각에 떠난 사람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잠자는 사람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였으니, 차마 죽음을 삼고 귀신을 삼고 싶지 않은 農巖의 마음을 간절히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술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 강신하고 곡하여 영결함은 죽음을 삼고 귀신을 삼는 절차이니, 이 속에서도 죽음을 죽음으로 삼지 않음과 귀신을 귀신으로 삼지 않음을 통하여 農巖의 누이에 대한 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農巖은 「祭靜觀先生文」에서도 靜觀 선생을 移葬하는 절차에 오히려 靜觀 선생의 학문과 덕행만을 이야기하여 더욱 靜觀 선생에 대한 情을 심화시키고 있다.

오직 세월이 辛巳에 그친 八月 丙辰朔 二十四日 己卯에 靜觀齋 李선생의 운구가 加平 朝宗山의 옛 무덤으로부터 나와, 이끌고서 楊州 靈芝洞의 새로 정한 묘터에 이르러서, 장차 그 九月初五日 己丑에 장사 지내려한다. 三日前 丙戌에 사위 安東 金昌協이 비로소 겨우 병을 붙들고 와서 哭을 하고, 제사를 베풀고

18) 金昌協, 『農巖集』 卷29, 「祭亡妹文」.

글을 지어 고하여 말한다. 아! 선생을 嘉陵에 墓한지 이제 三十三年이어서, 그 나무가 이미 하늘을 찢었다. 비록 金聲과 玉色이 오래도록 흙 속에 묻혔어도, 遺風과 餘韻이 肅然히 인간에게 남은 것은 오히려 투박함을 일으키고 완만함을 거두기에 충분하다. 하물며 나는 일찍부터 문과 담을 가까이 하여, 진실로 이미 當年에 열복했음에다? 그 이미 장년이 되고 늙음에 이르러 人事가 미루어 옮겨 감을 경험하여서는, 더욱 그 조짐을 봄이 明哲하고, 도를 지킴이 誠切하며, 뜻과 절개가 卓邁하고, 心事가 灑落하여 세상에 다시 이런 어둠이 있지 않음을 알았다. 매번 오늘의 儒林이 찢어지고, 풍속이 무너져서, 나의 도가 날로 더욱 가기가 힘들니, 선생으로 하여금 계시게 한다면 아직도 구제하여 절반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돌아보면 무슨 연유로 구천에서 다시 일어나시겠는가? 세상의 속이고 음험하며, 지조나 식견이 없고 어두워서 때에 이익 됨이 없고, 名教에 해가 되는 자들을 보면, 대부분 누런 얼굴과 하얀 머리가 많으니, 어찌 장수함은 저들에게 치우치게 주고, 홀로 선생에게는 오래 연장할 수 없었는가? 이것은 진실로 크게 탄식하고 눈물 흘리며, 깊이 목숨의 길고 짧음의 권한을 잡은 자에게 유감스럽다.

維歲次辛巳八月丙辰朔二十四日己卯 靜觀齋李先生之柩 出自加平朝宗之舊墓 靱而至楊州靈芝洞新卜之原 將以其九月初五日己丑葬 前三日丙戌 外甥安東金昌協始克扶病來哭 設祭爲文而告曰 嗚呼 先生之墓于嘉陵 今卅有三祀 其木幾已刺天矣 雖金聲玉色 永闕於土中 而遺風餘韻之肅然在人間者 猶足以起儉而廉頑 況余之早親門牆 固已悅服乎當年 及其既壯而老 備人事之推遷 益知其見幾之明哲 衛道之誠切 志節之卓邁 心事之灑落 世無復有此賢矣 每念今日儒林 磝裂 風俗崩壞 而吾道日益迤邐 使先生而在 則尙可以救得一半 而顧何由復起於九原也 觀世之齏粉 瑣瑣 無益於時而有害於名教者 類多黃馘而華顛 何壽考之偏界於彼而獨先生不能以久延也 此誠可爲太息流涕而深有憾於秉壽夭之權者也¹⁹⁾

農巖은 자신의 장인이며 스승인 靜觀 先生을 移葬함에 이르러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직 정관 선생의 학문과 덕행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룽에 묘한지 이미 삼십 삼년이 지나 자연의 변화가 이미 나무가 자라 하늘을 찢는데, 위엄 있는 목소리와 우아한 용모는 오히려 세상의 투박함을 일으키고 완만함을 청렴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였으니,

19) 金昌協, 『農巖集』 卷30, 「祭靜觀先生文」.

그 尊敬과 情을 알만하다. 더욱이 장년이 되고 늙음에 이르러서는 人事가 미루어 옮겨감이 갖추어져서 그 조짐을 봄이 明哲하고 도를 지키기 誠切하며 뜻과 절개가 卓邁하고 心事가 灑落하여 세상에 다시 이런 뛰어난 인물이 있지 않음을 알았다 하고, 때문에 오늘의 유림이 찢어지고 풍속이 무너져서 도가 날로 나아가기 어려움을 생각할 때마다 선생으로 하여금 지금 계시게 한다면 절반은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따라서 목숨의 길고 짧음을 잡은 자를 원망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지극한 간절함이며 얼마나 지극한 그리움인가?

이어서 農巖은 이러한 자신의 소망을 죽어서라도 이루고 싶은 것이 선생의 높고 밝음 때문이라 하였다.

만약 小子의 禍 때문에 스스로 폐하였다면, 비록 감히 망령되어 선생의 높은 자취에 기대지 못하고 丘壑에 깃들이더라도, 자취는 서로 이웃이니, 옛날에 한 두 가지 들은 바로 나아가서, 인하여 다시 얻어서 책에서 이치를 추구한다면, 그 혹 의심이 있고 얻음이 있는 것이 제법 또한 當日의 忘食하고 忘憂함의 所以然을 알 것이다. 오직 性命의 미묘함과 象數의 繁蹟함은 진실로 선생이 일찍이 연구하여 꿰뚫은 바이다. 이는 그 설이 진실로 주돈이의 圖와 소강절의 글에 갖추어져서 아래로 二鮑가 論鑄한 것에 미치니, 돌아보면 淺陋한데도 좇아 講質함이 없고 다만 책을 어루만지며 탄식을 일으킬 뿐이니, 대개 窮居하여 도를 배움으로부터는 선생을 사모하는 바의 것이 前보다 더욱 간절하다.

若小子之禍故自廢 雖不敢妄擬於先生之高蹈 而棲遲丘壑 跡則相隣 卽平昔一二所聞 因復得以追理於簡編 其或有疑而有得 頗亦知當日忘食忘憂之所以然 惟性命之微妙 與象數之繁蹟 實先生所嘗研究而貫穿 此其說固具於周翁之圖 邵子之書 以下逮於二鮑之所論鑄 顧淺陋無從講質 只有撫卷而興歎 蓋自窮居而學道 所以慕先生者 愈切於前矣²⁰⁾

그 어느 곳에도 선생에 대한 정을 표현한 곳이 없다. 그러나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서술하면 서술할수록 더욱 農巖의 선생에 대한 정이 두

20) 金昌協, 『農巖集』 卷30, 「祭靜觀先生文」.

터워짐을 느끼는 것은 農巖이 선생을 사모함이 지극한 때문일 것이다.

2. 抑揚反復 : 문장의 기세를 마음대로 조절하다.

農巖의 문장은 潮水와 같음이 있다. 이러한 문장의 기세는 ‘收’와 ‘縱’의 수법으로부터 왔다. 農巖은 특히 ‘縱’을 좋아하여 즐겨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 좀처럼 제목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는 그의 장점이며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다. 뛰어난 사람도 또한 이러한 단점이 있는 것이다.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이 밝아놓은 탄탄대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풍부한 창조성으로 小路를 선택하며 捷徑을 찾아 달린다는 데에 있다. 이렇게 선택한 첩경은 자신에게는 익숙한 것이라 매우 빨리 달릴 수 있다. 창조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자신이 의식적으로 고집하지 않아도 그것은 응당 용이함과 만족감을 주는 데에 일조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는 자신이 잘 해낼 수 있는 자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점을 드러내고 단점을 피하는 것, 이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밝은 지혜를 간직한 이가 하는 선택이다.

農巖의 문장은 변화가 풍부하면서도 또한 매우 자연스럽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어지는 것은 문장은 변해도 情理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문장의 변함’이란 문장의 기세가 그침 없이 오르락내리락 전환되는 것이 마치 봉새가 하늘에 달고 곤어가 바다에서 노니는 것 같아 변화의 폭이 크면서도 웅장하며 강력한 힘이 있다는 말이며, ‘情理가 변하지 않음’이란 시종일관 마음에 위배되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회로 애락의 감정을 자연스레 드러내어 수식을 더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자연히 情理를 속이는 병폐가 없게 되는데, 이는 문장을 써내려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큰 前提를 실현한 것이다. 사실 文勢의 변화는 대부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한 데에서 나오는 것이며, 장점을 드러내고 단점을 피하는 필요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亡兒初菴祭文」에서 農巖은 자신의 亡兒에 대한 지극한 정과 무한한

그리움을 反復되는 구절을 통하여 고조시키고 있다.

그 출입하고 기거함에도 오직 너였고, 질병과 우환에도 오직 너였고, 산에 오르고 강에 다다라 고기 잡고 낚시질하며 오르내림에도 오직 너였다. 좋은 때 한가한 날에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며 한가함을 펼칠 때에도 또한 오직 너였고, 동산을 다스리고 누각을 쌓고 연못을 파며 꽃을 심고 나무를 가꿈에도 또한 오직 너였고, 고금의 인물과 문장의 高下와 일의 是非得失을 講論함에도 또한 오직 너였고, 빈객과 문생이 이르러 出入往來하고 應對接遇함에도 또한 오직 너였다.

其出入起居 惟汝 疾病憂患 惟汝 登山臨水 漁釣上下 惟汝 良辰暇日 飲酒賦詩 陶寫間燕 亦惟汝 治園圃 築臺榭 穿池沼 種花栽樹 亦惟汝 講論古今人物 文章高下 事是非得失 亦惟汝 以至賓客門生 出入往來 應對接遇 亦惟汝²¹⁾

農巖의 亡兒에 대한 감정이 ‘惟汝’란 두 자를 통하여 反復되며 고조되고 있다. 뒤에 이르러서는 ‘亦惟汝’로 ‘亦’ 자를 더 첨가함으로써 감정의 極致를 보이고 있다. 出入하고 起居함에도 오직 너였고, 疾病과 憂患에도 오직 너였고, 자연을 즐김에도 오직 너였고,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함에도 또한 오직 너였고 賓客과 門生을 대함에도 또한 오직 너였으니, 항상 한 시도 같이 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어느 父子間의 情이 이보다 더 두터울 수 있겠는가? 따라서 農巖은 “너의 風度和 格韻과 언론과 識趣는 또 내 뜻에 옳지 않음이 있음이 드물었으니, 대개 서로 더불어 표 없이 합해지고, 기뻐서 알맞으며, 다시 가난하고 곤란함이 근심이 되고 千駟와 萬鍾이 사모할 만함을 알지 못했다. 父子之間의 사랑은 사람이면 누구들 없겠냐마는, 그 서로 얻는 즐거움이 또 어찌 나와 너 같은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네가 일찍이 이로써 생각할 것을 삼지 않고, 결연히 길이 가서 홀로 나를 머물러 世間에 있게 하니, 의지하고 믿고서 삶을 삼을 바가 없다. 아! 어찌 그리 무정한가?”²²⁾라 하였으니, 父子間이

21) 金昌協, 『農巖集』 卷30, 「亡兒初葬祭文」.

22) 金昌協, 위의 책, 「亡兒初葬祭文」, “而汝之風度格韻, 言論識趣, 又鮮有不可於

표 없이 함해지고 기뻐서 알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다시 이별함에 이르러서는 의지하고 믿어 삶을 삼을 바가 없게 된 것이다.

다시금 農巖은 亡兒의 죽음을 깨닫는 순간에 슬픔이 더욱 북받쳐 오르게 됨을 반복되는 구절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내가 거처함에 모시고 앉을 사람은 누구이며, 내가 나감에 따라갈 자는 누구이며, 내가 말함에 들을 자는 누구이며, 내가 읊조림에 화답할 자는 누구이며, 내가 밖으로부터 돌아옴에 말머리에서 절하며 맞이할 자는 누구인가?

吾處而待坐者誰歟 吾出而從行者誰歟 吾言而聽者誰歟 吾吟而和者誰歟 吾歸自外而迎拜於馬首者誰歟²³⁾

‘者誰歟’란 석 자가 반복되어 물음을 나타내는 가운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거처하고 나감에 같이할 자가 누구이며, 말하고 읊조림에 화답할 자가 누구이며, 절하며 맞이할 자가 누구인가? 이러하니, 어찌 “兀兀하고 외로우며, 실신하고 갈팡질팡하여, 넘어진 나무가 가지가 없는 것과 같고, 죽은 재가 불타지 않는 것과 같아서, 인생이 이와 같다면 어찌 즐거울 수 있으며, 그러나 오히려 굶주림에 먹을 것을 구하고, 추움에 옷을 구하고, 병듦에 약을 구하여 구차하게 세월의 壽를 연장하니, 심하구나. 나의 어리석음이어.”²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한 農巖은 “사람들은 내가 오랫동안 병이 들어 낫지 않는 것을 그 지나치게 슬퍼하여 상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여기고, 문득 버려두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계하니, 저 슬픔의 지나침은 내가 진실로 없지만, 생

吾意者，蓋相與泯然而會，怡然而適，不復知窮約之爲戚而千駟萬鍾之可慕矣。父子之愛 人孰無之，而其相得之樂，又豈有如吾與汝者哉。然汝曾不以是爲可懷，而決然長逝，獨留余在世間，無所憑恃 而爲生。嗚呼！何其愬也？”

23) 金昌協, 위의 책, 「亡兒初葬祭文」.

24) 金昌協, 위의 책, 「亡兒初葬祭文」, “兀兀踽踽, 忽忽偃偃, 如壞木之無枝, 如死灰之不然, 人生如此, 寧有可樂. 然猶飢而求食, 寒而求衣, 疾病而求藥, 以苟延歲月之壽, 甚矣! 吾之頑也?”

각인들 어찌 생각 말 수가 있겠는가?”²⁵⁾라 하여, 亡兒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을 吐露하고 있다.

책을 펴면 생각나고, 술과 밥이 있으면 생각나고, 古人의 좋은 시와 문장을 보면 생각나고, 일을 만나 의론할 만함이 있으면 생각나고, 출입함에 후생들의 나이가 너와 더불어 서로 가까운 자를 보면 생각나고, 山水를 만나면 생각나고, 풀이 나고 꽃이 피면 생각나고, 바람이 맑고 달이 밝으면 생각나고, 피꼬리의 울음과 매미의 울조림과 기러기의 울음과 학의 울음을 들으면 생각나고, 일에 느끼는 바가 있고 사물에 부딪치는 바가 있으면, 무릇 어디를 간들 내가 생각나지 않겠는가?

開卷則思 有酒食則思 見古人好詩文則思 遇事有可議則思 出入見後生年歲與汝相近者則思 遇山水則思 草生花發則思 風清月朗則思 聞鶯啼蟬吟 鴈鳴鶴唳則思 事有所感 物有所觸 夫何往而不汝思²⁶⁾

亡兒에 대한 그리움이 ‘則思’란 두 자가 반복되며, 어느 때 어느 장소를 莫論하고 이어지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事有所感에도 생각이 나고 物有所觸에도 생각이 나니, 그리움이 극진한 것이다. 이는 다시 “생각하나 볼 수가 없으니, 슬픔이 진실로 이를 따른다. 그러나 슬픔은 오히려 억제할 수 있어서 이미 심함에 이르지 않는지만, 생각이 邂逅에서 말하여 無窮에서 순환하는 것은 내가 또 어찌 그만 둘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이 마음이 장벽과 같은 뒤에야 가능할 것이다. 내가 비록 어리석으나 그 그럴 수 있겠는가? 생각건대 숨 쉬는 것이 끊기지 않는다면, 너를 생각하지 않는 날도 없을 것이다. 무릇 世間の 날마다 사용하는 사물과 살아가는 사람이 함께 즐기고 즐거워하는 바에 하나도 느껴서 아프지 않은 실마리가 없다. 내가 쇠약하고 병들었으니, 그 장차 무엇으로써 이를 견딜까? 너의 효심이 또한 어찌 이로써 부모에게 남기고자 했는

25) 金昌協, 위의 책, 「亡兒初葬祭文」, “人以余久病未瘳, 意其過哀致傷, 輒戒以棄置勿思. 夫過哀, 吾固無之, 思則安能勿思.”

26) 金昌協, 위의 책, 「亡兒初葬祭文」.

가?”²⁷⁾로 이어지고 있으니, 부모의 자식을 앞서 보내는 처절함이 비록 슬픔을 억제할 수 있다고 했으나, 어찌 견딜 수 있는 고통이겠는가? 슬픔을 견딜 수 있고, 진실로 슬픔이 없다고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슬픔이 더욱 더 지극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祭亡妹文」에서 農巖은 “나의 형제들이 부모의 슬하에 모두 모일 수 없었던 것이 오래이다. 대개 우리 부친이 嶺海로 귀양을 당함으로 부터 집안이 떠나고 흩어져 남북으로 천리가 되었는데, 너와 막내가 진실로 항상 부모의 옆에 있었고, 여러 형제들은 각자 왕래하며 살펴보았다. 그 뒤와 앞으로 합했다 흩어졌다 함이 들쭉날쭉하여 고르지 않으니, 마침내 하루라도 함께 할 수 없었다. 이제 다행히 두 어른을 받들 수 있어서 다시 서울 집에 돌아왔으니, 거의 영원한 團圓으로써 다시 전날의 의지함을 바랬는데, 누가 네가 하루아침에 죽어서 우리 천륜의 질서로 하여금 비로소 합해졌다가 문득 무너져서, 영원히 어그러져 다시 완전할 수 없다고 일렀던가? 슬프구나, 슬프구나. 아프구나, 아프구나.”²⁸⁾라 하여, 자신의 형제들이 부모의 슬하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오래였고, 다시 기회를 얻어 영원한 친밀로 서로 의지하기를 바랐는데 누이가 하루아침에 죽어서 완전할 수 없음을 슬퍼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이후에는 내가 그 바랄 것이 없구나. 아침저녁으로 문안을 감에 형제들이 같이 나아가는데, 너는 있지 않으며, 아침저녁으로 식사를 모심에

27) 金昌協, 위의 책, 「亡兒初葬祭文」, “思之而不可見, 哀固從之. 然哀猶可制, 而不至於已甚, 思之發於邂逅而循環於無窮者, 吾又安能已之耶? 須是此心如墻壁而後可也, 吾雖頑, 其能然乎? 要之一息未泯, 無非思汝之日, 而凡世間日用事物生人之所共娛樂, 無一而非感傷之端矣. 以吾衰病 其將何以堪此, 而汝之孝心, 亦豈欲以此遺父母耶?”

28) 金昌協, 『農巖集』 卷29, 「祭亡妹文」, “吾兄弟之不得悉聚於父母之膝下久矣. 蓋自我尊翁竄逐嶺海, 室家離散, 南北千里, 汝與季弟, 固常在親側, 而諸兄弟各往來省覲. 其後先合散, 參差不齊, 竟不能以一日俱也. 今幸得奉二尊人, 復還京第, 則庶幾得以永久團圓 以復前日之躋矣. 孰謂汝一朝溘然, 使吾天倫之序, 方合而遽乖, 永缺而不復完耶? 悲夫悲夫! 痛矣痛矣!”

형제들이 나란히 앉았는데, 너는 있지 않으며, 출입함에도 너는 더불어 함께 하지 못하고, 웃으며 말함에도 너는 더불어 함께 하지 못하는구나. 비록 나이를 다하여 세상을 마치더라도 다시 너를 봄을 얻을 수가 없구나. 하늘이여, 하늘이여, 어찌 나의 반체를 찢었으며, 그 어찌 차마 내 세대에 이르러 너를 빼앗았는가? 슬프구나, 슬프구나, 아프구나, 아프구나.

自今以後 吾其無所望矣 晨昏問寢 兄弟俱詣 而汝則不在矣 早晚侍食 兄弟列坐 而汝則不在矣 出入而汝不與偕矣 笑言而汝不與共矣 雖窮年沒世 而不可得以復見汝矣 天乎天乎 寧割吾之半體 其何忍當吾世而奪汝耶 悲夫悲夫 痛矣痛矣²⁹⁾

윗글에서 보이는 ‘晨昏問寢 兄弟俱詣 而汝則不在矣 早晚侍食 兄弟列坐 而汝則不在矣’와 ‘出入而汝不與偕矣 笑言而汝不與共矣’에서는 반복되는 구절이 사용되어 형제가 함께하는 곳에 보이지 않는 누이의 모습이 실감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抑揚을 反復하는 技法은 접속사 또는 감탄사나 종결사의 쓰임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는데, 「亡弟再葍祭文」에서는 종결을 나타내는 ‘也’ 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矣’ 자를 사용하여 문장의 흐름을 끊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乎’ 자는 열다섯 번이나 빈번하게 사용하여 때로는 의문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감탄을 나타내며 간결하면서도 여운의 맛을 한층 더하고 있다. ‘嗚呼’란 감탄사는 여섯 번이 사용되었는데, 문장을 일단락 지으며 격앙된 마음을 억누르는가 하면 슬픔을 고조시키고 있다. 「祭亡妹文」에서는 접속을 나타내는 ‘而’ 자가 무려 41 번이나 사용되었는데, 이는 「亡兒初葍祭文」에도 34번이 사용되었고, 「祭亡兒文」에는 20번, 「祭靜觀先生文」에는 23번, 「亡弟再葍祭文」에는 20번이 사용되었다. 이는 때로는 문장을 이어주고 때로는 문장을 뒤집으며 문장에 운율을 주고 감정을 정리하고 있다. 역시 「祭亡妹文」에는 하나의 단락이 끝날 때마다 ‘悲夫悲夫 痛矣痛矣’란 감탄사를 사용하여(7번이 사용되었음) 슬픔을 다시금 일깨우면서도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29) 金昌協, 위의 책, 「祭亡妹文」.

는 「祭亡兒文」에 ‘豈不悲哉 豈不悲哉’나 ‘嗚呼崇謙 已乎已乎’와 ‘嗚呼哀哉 嗚呼痛哉’로 反復되는 구절을 통하여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祭亡妹文」의 ‘天乎人乎 神乎鬼乎’와 ‘天乎天乎’에서도 보이고 있다.

農巖은 「亡弟再葬祭文」에서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이치에 자신의 슬픔을 위로하며 아우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精英한 氣와 昭朗한 質이 거두어 돌아감이 그 장소가 있는가? 응결되어 모임이 그 물체가 있는가? 그 거품이 바다에서 없어짐에 일찍이 없어진 것이 아닌 것과 같은가? 또한 가는 구름이 하늘에서 흩어짐에 마침내 있지 아니함과 같은가? 四方 上下에 어찌 향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가? 한 번 감에 삼 년인데, 어찌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는가? 아! 卓而여, 屈伸하고 往來하며, 合散하고 消息함은 이는 모두 數가 있으니, 내가 하늘에 어찌할 것인가? 오직 그 風雅를 깊이 생각했으나, 드문 소리를 떨칠 수 없었고, 古今에 뜻을 들었으나, 원대한 일을 채울 수가 없어서, 다만 남은 원고에 그 향기를 기탁하였고, 짧은 돌에 그 이름을 표시하였으니, 하늘에 닿는 애통함과 땅에 사무치는 한스러움은 오직 이 뿐이다. 아! 卓而여,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精英之氣 昭郎之質 斂而歸之 其有處乎 凝而鍾焉 其有物乎 其猶浮漚之滅於海而未嘗亡乎 抑猶行雲之散乎天而卒無有乎 四方上下 何莫知所向 一往三年 何至今不復 嗚呼卓而 屈伸往來 合散消息 此皆有數 吾如天何哉 惟其覃思風雅 而不能振希聲 抗志古今而不能充遠業 徒以殘藁寄其馥而短石表其名 窮天之痛 徹地之恨 惟此而已矣 嗚呼卓而 其然乎 其不然乎³⁰⁾

農巖은 자신의 슬픔을 하늘의 이치로 돌리며 달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도 어찌 할 수 없는 마음을 吐露하고 있다. 뛰어난 재능과 德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음을 오히려 더욱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이치는 다 정해진 數가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라며, 風雅를 깊이 생각했으나 세상에 드문 소리를 떨치지 못하였고, 古今의 높은 뜻을 품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음을 말하여 그 슬픔을 더하고 있다.

30) 金昌協, 위의 책, 「亡弟再葬祭文」.

한편, 「祭亡兒文」에서는 亡兒의 俊偉한 자질과 英邁한 기상과 敏達한 학식과 遠大한 뜻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죽은 안타까움을 세상의 이치로 나타내고 있다.

풍부한 재능에 얇은 祿과 긴 수명에 짧은 이름은, 이런 恨을 품은 자가 세상에 어찌 없겠는가마는, 너와 같이 슬픈 자는 옛날부터 드문 바이다. 俊偉한 자질과 英邁한 기상과 敏達한 학식과 遠大한 뜻은 百에도 하나를 보지 못했다. 두터운 땅 속에 묻혔으니, 그 장차 세속 사람이나 보통 사람들과 더불어 泯滅한 데에 같이 돌아갈 뿐인가? 문득 옛날의 재능 있는 사람과 뜻 있는 선비가 비록 혹 시험보지 못하고 죽었으나, 힘입어 썩지 않는 것은 그 저술이 後世에 전해지는 것뿐이다. 너는 詞章에 힘을 씀이 매우 오래지 않았으나, 奇健하고 驟長함이 옛 작가들의 氣格에 달려가니, 散軼된 나머지는 오히려 數三百篇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 눈을 갖춘 자가 없어서 대부분 나이나 지위로써 重輕을 삼으니, 너는 한 布衣로 弱冠에 죽었으니, 그 詩가 비록 기록할 만하나, 또 누가 채집하고 누가 傳하겠는가? 또 설령 후세에 전해진다 해도, 후세 사람들이 子安과 長吉의 무리에 함께하는 데에 불과할 것이다. 이 예로써 보면 곧 네가 보존하던 바가 마침내 천년의 뒤에 드러나 나타남이 없을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豐才薄祿 長筭短造 抱此恨者 世豈無之 而如汝可哀 終古所罕 俊偉之資 英邁之氣 敏達之識 遠大之志 百不一見 埋之厚壤 其將與俗子庸夫同歸於泯滅而已耶 抑古之才人志士 雖或不試而死 所賴而不朽者 以其著述傳於後耳 汝於詞章 用力不甚久 而奇健驟長 駸駸乎古作者氣格 散軼之餘 尙可得數三百篇 然世無具眼者 類以年位爲重輕 汝以一布衣 死於弱冠 其詩雖可錄 又孰採而孰傳之耶 且使得傳於後 後之人 不過與子安長吉之徒 一例視之 則是汝之所存 終無以表見於千載之下矣 豈不悲哉 豈不悲哉³¹⁾

세상에는 풍부한 재능이 있으나 벼슬이 높지 못했고, 오래 살았으나 성취가 적은 사람들도 많지만, 젊어서 죽었으나 풍부한 재능과 뛰어난 성취는 亡兒만 같은 자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후세에 썩고 썩지 않고는 오직 저술이 후세에 전하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고, 망

31) 金昌協, 『農巖集』 卷30, 「祭亡兒文」.

아는 충분한 이름이 있었으나 세상의 이치가 대부분 나이와 지위로써 평가를 내려서 경중을 삼으니, 이것이 슬프다고 하였다. 農巖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亡兒의 뛰어난이나 저술이 후세에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아니다. 다만 이를 통하여 父子間의 두터운 정을 드러내 고자 하였을 뿐이다.

한편, 農巖은 「祭亡妹文」에서는 亡妹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人之常情의 곱절이 되는 이유로 亡妹가 자질의 아름다움과 빼어난 용모와 덕성을 지녔음에도 불행하게 죽었음을 들어 표현하고 있다.

형제의 정은 손과 같고 발과 같아서, 뛰어나건 어리석건 재능의 있건 없건 사랑함에는 사이가 없는 것이다. 壽考와 福祿은 사람이면 누구들 바라지 않으며, 死喪과 窮戚에는 또한 누구들 슬퍼하지 않겠는가? 오직 나만이 너에게 진실로 常情에 곱절이 되는 것은, 대개 너의 자질의 아름다움이 淸明하고 溫粹하며, 용모의 빼어남은 이마가 융기한 귀상이고 살이 포동포동한 아리따운 모습이다. 효성과 우애는 지극한 성품에서 나오고 婉婉함은 여자의 규범에 부합한다. 이런 모든 아름다움을 갖추고서, 또 우리 집안에 태어나니, 그 네가 장수하기를 바라고 너의 복록을 기약하는 바가 마치 문서에 도장 찍는 것과 같았고, 아침저녁으로 갠아질 것을 구함이 마치 아름다운 곡식을 심어서 가을을 기다려서 수확하는 것과 같았는데, 이제 이에 일체 이것을 되돌려 부모에게 마칠 때까지 봉양할 수 없음이 있고, 남편을 섬김에 삼년을 채우지 못하였고, 살아서 시부모에게 돌아가 뵈움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죽어서도 그 남은 아이를 보호할 수 없었으니, 산 사람에게 지극한 슬픔을 갖추어 세상의 지극한 궁함이 되게 하니, 누가 네가 뛰어 남으로 생명의 짧은을 받아서 한결 같이 여기에 이르렀다고 일컫는가? 하늘인가, 사람인가, 신령인가, 귀신인가. 너로 하여금 이런 극한 데에 이르러 한 것이 누구인가? 슬프구나, 슬프구나, 아프구나, 아프구나.

兄弟之情 如手如足 賢愚才否 愛則無間 壽考福祿 人孰不願 死喪窮戚 亦孰不哀 而唯余於汝實倍常情 蓋以汝資質之美 淸明而溫粹 容貌之秀 犀角而豐盈 孝友出於至性 婉婉合乎女則 具茲衆美 又生于我家 其所以望汝壽考 期汝福祿者 如執左契 朝暮責償 如種嘉穀 待秋而穫 今乃一切反是 有父母不克終養 事君子不滿三歲 生而不及歸見舅姑 沒而不得保其遺孩 備生人之至戚 而爲天下之至窮 孰謂以汝之賢 而賦命之薄 一至於此耶 天乎人乎 神乎鬼乎 使汝至此極者誰耶 悲夫悲夫 痛

矣痛矣³²⁾

형제의 정은 사랑함에는 누구나 같은 것이고, 壽考와 福祿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 死喪과 窮戚에 누구나 슬퍼하는 것은 세상 이치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이 자신이 누이에게 인지상정보다 곱절이 되는 것은 아름다운 자질과 빼어난 용모와 지극한 성품을 갖추고서도 오히려 불행하게 된 때문이라 했다. 누이에 대한 자신의 정을 전혀 말하지 않고 오직 누이의 뛰어난 불행함을 이야기하여 자신과 누이간의 두터운 정을 표현하고 있다.

3. 辭隨意達 : 말과 뜻이 하나를 이루다.

재료가 풍부하고 사상이 예민하며 감정이 충만한데도 그것과 걸맞은 언어능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도 氣勢가 풍부한 작품을 써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언어가 氣勢를 구성할 수 있는가? 우선 表達의 필요에 딱 들어맞도록 해야 하니, 辭隨意達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풍부하면서도 한 마디도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지 않고, 간략하지만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형식과 내용이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아야 문장은 생동감 있고 확연해진다.

農巖은 「亡弟再葬祭文」을 再期日을 맞이하여 갑자기 무심했던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오직 해가 乙丑에 그친 十二月 丁亥朔 二十六日 壬子는 실은 나의 죽은 동생 卓而의 再葬日이 된다. 그 하루 전 辛亥에 仲兄 창협은 대략 술과 안주의 계수를 갖추고, 곡하고 술 따르며 말한다. 아! 이십오 개월이로다. 옛사람들이 ‘隙駟’라 말하지 않았던가? 네가 죽은 지가 이제 마침 이 葬日에 이르렀다. 筵几의 설치와 哭泣의 절차는 사람들이 빙자하여 의지하는 바가 그 여기에 있는데, 이제 장차 철거하여 버려야 하고 막아서 그쳐야 하니, 先王이 제정한 禮여서 그 어찌

32) 金昌協, 『農巖集』 卷29, 「祭亡妹文」.

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갑자기 서로 잇은 지가 그 이미 오래이다. 안으로는 아침저녁으로 급하고, 밖으로는 原隰으로 달려서 나라 일에 힘써 일하여, 사사로움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아침저녁의 먹임과 朔望의 제수에는 비어서 참여하지 못한 것이 十中八九였다. 살아서는 아끼고 죽어서는 버린다는 것이 진실로 그 그러한가? 날로 멀어지고 날로 잊어버리니, 진실로 이것을 이름인가? 내가 진실로 너를 등졌는가? 내가 진실로 나를 원망하는가? 아! 이 어찌 된 일인가?

維歲次乙丑十二月丁亥朔二十六日壬子 實爲吾亡弟卓而之再朞 其前一日辛亥 仲兄昌協 略具醪羞之奠 哭而酌之曰 嗚呼 二十五日 古人不曰隙駟乎 汝之亡也 今適及是朞矣 筵几之設 哭泣之節 人所憑依 其在是矣 而今將撤而去之 抑而止之 先王制禮 其末如之何也已 然吾於汝 忽焉相忘 其已久矣 內迫夙夜 外驚原隰 鞅掌王事 不暇顧私 朝晡之饋 朔望之奠 曠而不與十八九矣 生憐而死捐 固其然乎 日遠而日忘 固謂是乎 我固負汝乎 汝固恨我乎 嗚呼 此何爲哉³³⁾

農巖은 아우의 再朞日을 맞이하여 자신의 무심함을 탓하면서, 살아있을 때는 사랑하다가 죽으면 저버리게 되는 것과 날이 멀어지면 날로 情도 멀어진다는 세속적인 이치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오히려 자신의 무심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는 아우가 죽었으나, 안으로는 아침저녁으로 바쁘고 밖으로는 原隰에 달려서 나라 일에 얽매어 사사로움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며, 심지어 朝晡之饋와 朔望之奠에도 거의 참여하지 못했음을 탓하고 있다. 이러한 무심함은 筵几의 설치와 哭泣의 절차가 있고 없음에서 극대화 된다. 그래도 있을 때에는 빙자하여 의지할 데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조차 철거하여 버려야 하고 막아서 그쳐야 하니, 지난날의 무심함이 더욱 서러운 것이다.

역시, 「亡兒初朞祭文」에서도 農巖은 亡兒의 初期日을 맞이하여 亡兒의 어릴 때의 일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오직 세월이辛巳에 그친 十月 甲寅朔 二十日 癸酉는 곧 亡兒의 初期日이다. 國喪이 안치되어 있어 성한 제사를 행할 수 없어 대략 약간 바치는 제수를 배

33) 金昌協, 위의 책, 「亡弟再朞祭文」.

푸니, 그 노부가 병을 이겨가며 글을 지어 권하며 말한다. 아! 네가 나를 버리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잃고서 홀로 존재함이 금방 삼백오십사 일이구나. 어찌 네가 이와 같이 걱정이 없고, 내가 매우 미련했는가? 나의 나이 삼십이 넘어서 비로소 너를 얻으니, 너는 英達하고 夙成하여 그 오류 세 때부터는 이미 나를 따라 밖에 두루 돌아 다녔고, 내가 화를 당하여 물러나 그만둠에 미처, 궁한 거처에 그윽히 홀로 십수 년 중에 오직 너와 더불어 서로 의지하여 목숨을 위했다.

維歲次辛巳十月甲寅朔初二十日癸酉 卽亡兒初葬之日也 以國喪在殯 不得行殷祭 略陳一獻之奠 而其老父力疾爲文以侑之曰 嗚呼 汝之棄我而不返 我之喪汝而獨存 忽已三百五旬有四日矣 何汝之若是愒而吾之甚頑也 吾年過三十 始得汝 而汝英達 夙成 自其五六歲時 已能從我周旋於外 及余禍變屏廢 窮居幽獨十數年中 唯與汝相依爲命³⁴⁾

農巖은 亡兒의 初期日을 맞이하여 세월의 빠름을 먼저 이야기 하고, 亡兒가 어려서부터 영달하고 숙성하여 오류 세에 이미 자기를 따라 밖으로 두루 돌아다녔고, 더욱이 자신이 화를 당하여 한쪽으로 물러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옆에서 더불어 목숨의 위안이 되었음을 생각하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된다. 農巖은 이처럼 期日이라는 절차를 맞이하는 자신의 감정을 세월의 흐름을 통해 자연스럽게 슬픔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4. 托物示意 : 사물에 뜻을 담다.

作家는 客觀을 표현하는 경우와 主觀을 표현하는 경우의 두 종류가 있는데, 農巖은 분명히 主觀을 표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언제나 托物示意하여 글을 쓰는데 한편으로는 사물을 의인화 내지는 정신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情意를 사물화 내지는 형상화한다. 그래서 物象과 情意가 서로 融合된, 明麗하면서도 또한 深遠한, 독특한 경계를

34) 金昌協, 『農巖集』 卷30, 「亡兒初葬祭文」.

구성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意境도 비로소 조화롭게 되고 통일감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날아오르는 기세가 있어 뜻밖에 생동감 있는 감동을 줄 수도 있게 된다.

「亡弟再葺祭文」에서 農巖은 죽음을 보내는 절차에 따라 亡者에 대한 감정도 변화한다고 하였다.

무릇 죽음을 보내는 절차가 또한 많이 변했다. 斂하여서 관을 덮으면 그 형체가 감추어지고, 장사지내 무덤에 봉하면 그 날이 단혀진다. 일 년에 小祥이니, 그 옷이 바뀌고, 그 절차가 매번 변함에 그 아픔이 매번 새롭다. 그러나 아직 筵几가 철거되지 않음에는 哭泣이 장소가 있어서 幽明의 사이가 매우 멀지는 않았고, 魂氣의 교류가 매우 소원하지는 않았는데, 이에 이제 장차 텅 비고 쉼하여 죽은 자로 하여금 귀신에 순수하게 하고, 산 자는 하나도 의지할 데가 없게 하니, 죽음을 보내는 변화는 여기에서 다하게 된다. 그런데 오직 나와 네가 바야흐로 처음 오늘에 영결을 하니, 이는 그 애통함이 없을 수 있겠으며, 애통함이 그 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 탁이여, 그 또한 그만이로다.

夫送終之節 亦多變矣 斂而蓋棺 其形隱矣 葬而封墓 其柩闕矣 期而小祥 其服改矣 其節每變 而其痛每新 然猶筵几未撤 哭泣有所 則幽明之間 未甚闊 而魂氣之交 未甚疎也 乃今將曠然廓然 使死者純乎鬼而生者一無憑焉 則送終之變 於是乎極矣 而惟我與汝 方始大訣於今日矣 此其可以無慟乎 慟其可以不甚乎 嗚呼卓而其亦已矣³⁵⁾

農巖은 죽은 이를 보내는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점점 죽은 이를 보내는 절차가 변해 갈수록 情이 멀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아우에 대한 애통한 심정을 토로하고 哭泣할 곳도 없어지게 됨을 말하여, 슬픔이 더욱 깊어짐을 표현하고 있다.

農巖은 죽은 이를 보내는 절차가 斂을 해서 관을 덮으면 그 형체를 볼 수 없게 되고, 封墳을 만들어 묻으면 그 널마저 볼 수 없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가눌 수 없는 비통한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1년이 지나

35) 金昌協, 『農巖集』 卷29, 「亡弟再葺祭文」.

小喪이 되면 그 服制가 고쳐지게 되니, 이는 그만큼 슬픔의 정도가 덜한 것이 평범한 논리이나, 農巖은 오히려 筵几가 거두어지지 않아 죽은 이를 가까이 느낄 수 있어서 그 슬픔이 새로워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農巖도 再葬日을 맞이해서는 모든 것이 비게 되고 끊어지게 되어, 죽은 자와 산 자의 정이 끝나게 되니, 이것이 農巖에게는 더욱 슬픔이 된다고 하였다.

한편, 「祭亡兒文」에서는 장사지내려는 택지의 위치를 통하여 父子間의 두터운 정을 표현하고 있다.

오직 세월이 庚戌에 그친 十一月 己丑朔 二十四日 壬子에 亡兒 崇謙의 관을 장차 끌고서 양주의 새로 지정한 묘소로 향할 때, 二日前 庚戌에 老父가 눈물을 뿌리며 글을 지어서 술과 밥의 제수로 권하며 더불어 永訣하여 말한다. 아! 崇謙아. 너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國門을 나서서 동쪽으로 삼십 리에 中泠의 포구와 忘憂의 고개와 王宿의 여울과 北斗의 내, 이는 모두 네가 일찍이 나귀를 타고 왕래하던 곳인데, 이제 어찌하여 관으로서 이 길을 나아가는가? 三洲의 택지를 돌아 數四리에 棲鵲의 바위와 爛柯의 누각과 金臺의 산과 判事의 정자, 이는 모두 네가 일찍이 시를 읊조리며 眺望하던 곳인데, 이제 어찌하여 관으로서 그 사이에 머물었는가?

維歲次庚辰一月己丑朔二十四日壬子 亡兒崇謙之柩 將鞞向揚州新卜之原 前二日 庚戌 老父涕泣爲文 以侑酒食之奠而與之訣曰 嗚呼崇謙 汝今惡乎往矣 出國門而東三十里 中泠之浦 忘憂之嶺 王宿之灘 北斗之川 此皆汝所嘗騎驢而往來者也 今奈何以柩而就斯路也 環三洲之宅數四里 棲鵲之巖 爛柯之臺 金臺之山 判事之亭 此皆汝所嘗吟詩而眺望者也 今奈何以柩而停其間也³⁶⁾

農巖의 亡兒에 대한 애뜻한 정이 운구가 지나가는 길을 통하여 묘사되고 있다. 살았을 때에 왕래하던 길과 시를 읊조리며 바라보던 강산을 이제 관으로 지나가는 亡兒의 모습을 통하여 정이 진하게 묻어나오고 있다. 이러한 부자간의 떨어질 수 없는 天倫의 정을 農巖은 다시금 亡兒

36) 金昌協, 『農巖集』 卷30, 「祭亡兒文」.

의 묘혈을 잡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였다.

네가 이미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 내 자신의 죽은 뒤의 일을 알 만하다. 오직 父子가 한 곳에 같이 장사 지내서 百世의 후로 하여금 몸과 혼백이 서로 의지하게 할 것이니, 이것이 크게 원함이 된다. 先山에 땅이 다하여 다시 관을 용납할 언덕이 없어서 버리고서 멀리 구하였으나 힘이 또 미치지 못하였다. 이제 다행히 鳳頭山의 기슭에 땅을 얻어 한 언덕의 위아래로 양혈을 뚫을 만하니, 術士들이 모두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였다. 이제 장차 너를 下穴에 장사 지내려하니, 그 위는 내 자신을 위한 훗날의 설계이다. 이는 石室 雪谷의 여러 大墓들과 三洲의 위택과의 거리가 數里 쯤을 지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너는 오히려 이로써 위안이 되어서, 스스로 그 외로움을 상심하지 않을 것인가?

汝既無子而死 吾身後事 其可知矣 唯父子同葬一處 使百世之後 體魄相依 此爲大願 而先山地盡 無復容棺之丘 捨而遠求 力又不逮 今幸得地於鳳頭山之麓 一岡上下 可扞兩穴 術人皆稱其佳 今將以汝葬於下穴 而其上者 以爲吾身後計 此去石室雪谷諸大墓及三洲之宅 要不過數里許 汝尙以是爲慰而不自傷其孤子也耶³⁷⁾

자식이 죽은 것도 박복한데, 더욱 後嗣가 없이 죽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말하고, 따라서 亡兒의 묘혈을 잡음에 자신의 묘혈도 같이 설계하는 과정을 통하여 부자간에 의지하고 위로하는 애뜻한 정이 죽은 이와 산 자의 사이를 굳게 연결하고 있으며, 선산에서의 가까움을 통하여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끈끈한 정을 묘사하는 데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祭靜觀先生文」에서는 선생의 묘를 移葬하려는 장소를 통하여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정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있다.

이에 지금 관이 다시 나감에 英爽함이 돌아온 듯 하고, 새로 정한 卜地가 또 바로 태극과 정관의 사이에 머무니, 무릇 그 좌우를 굽어보고 우러러봄에, 숲 줄기와 계곡물, 누각과 연못과 샘과 돌이 모두 옛날에 지팡이 잡고 밟으며 산책하던 곳이고, 제자들이 배회하던 곳이다. 어찌 故壟이 헐어져서, 진실로 선생께

37) 金昌協, 위의 책, 「祭亡兒文」.

서 이 그윽히 깃들인 곳을 돌아 품으셔서, 또한 우리 門人들을 한 번 보고자 한 것인가? 그러나 儀形이 보이지 않고, 기침소리가 들림이 없는데, 다시 저승에 영원히 돌아갔으니, 오직 제자들이 깊이 애통함은 태산이 새로 무너진 것과 같다.

乃今棺柩再出 英爽如還 而新兆之卜 又正食於太極靜觀之間 凡其俯仰左右 林巒澗谷 臺池泉石 皆昔杖履之所相羊 而冠童之所踟躕 豈故壟之灑嚙 固先生所以瞻懷此幽棲 而亦欲一見我門人耶 然而儀形莫覩 嚙咳無聞 而復永歸于重泉 惟後死之深慟 若新頽於泰山³⁸⁾

새로이 관이 나아온 자리는 다름 아닌 太極과 靜觀의 사이이고, 옛날에 선생이 지팡이 짚고 거닐던 장소이며, 제자들이 배회하던 장소라 말하고, 이는 아마도 선생이 제자들을 그리워한 때문이 아니겠냐며 이것을 제자들이 더욱 애통해 한다 하였으니, 師弟間의 두터운 정을 나타내 고자 한 것이다.

IV. 結 論

사람이 지은 文章 가운데에서 가장 心琴을 울리는 글은 죽은 사람의 靈前에 告하는 哀祭類의 글일 것이다. 哀祭類의 文章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이의 靈魂에게 글로써 追慕하고 慰勞 할 수 있는 文類이기에 내용이 슬프고 처절하지 않은 것이 없다.

고대의 祭文은 歆饗를 告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는데, 중세 이후의 祭文에는 言行을 아울러 讚美했다고 한다. 그러나 神을 내려오게 함은 여러 수식을 발하는 것보다는 진실에 힘써야 하니, 정성과 슬픔이 그 본질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農巖 祭文의 대표작으로 제시한 작품들은 모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과 스승, 그리고 형제에 관한 글인 만큼, 農巖이 심혈을

38) 金昌協, 위의 책, 「祭靜觀先生文」.

기울였으리란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技法을 사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슬픔에 젖어들게 하고 있다.

문장기법에서 農巖은 먼저 ‘품고 드러내지 않는’ 기법을 사용하여 질박한 표현으로 사실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祭亡妹文」을 시작함에 죽음이 되고 귀신이 됨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점점 죽음을 삼고 귀신을 삼는 과정을 통하여 정을 북돋아가고 있으며, 「祭靜觀先生文」에서도 靜觀 선생을 移葬하는 절차에 오히려 靜觀 선생의 학문과 덕행만을 이야기하여 더욱 靜觀 선생에 대한 情을 심화시키고 있다.

두 번째로는 ‘문장의 기세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같은 구절을 겹치거나 중간 중간에 삽입하여 抑揚을 反復시키고 있는데, 「亡兒初葬祭文」에서 자신의 亡兒에 대한 지극한 정과 무한한 그리움을 亡兒에 대한 감정이 ‘惟汝’란 두 자를 통하여 反復되며 고조되고 있으며, 뒤에 이르러서는 ‘亦惟汝’로 ‘亦’ 자를 더 첨가함으로써 감정의 極致를 보이고 있다. 亡兒의 죽음을 깨닫는 순간에도 ‘者誰歟’란 석 자가 반복되어 물음을 나타내는 가운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어서 亡兒에 대한 그리움이 ‘則思’란 두 자가 반복되며, 어느 때 어느 장소를 莫論하고 이어지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한편, 「祭亡妹文」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사용되어 자신의 형제들이 부모의 슬하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오래였고, 다시 기회를 얻어 영원한 친밀로 서로 의지하기를 바랐는데 누이가 하루아침에 죽어서 완전할 수 없음을 슬퍼하고 있으며, 亡妹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人之常情의 곱절이 되는 이유로 亡妹가 자질의 아름다움과 빼어난 용모와 덕성을 지녔음에도 불행하게 죽었음을 들어 표현하고 있다. 「亡弟再葬祭文」에서는 어찌 할 수 없는 하늘의 이치에 자신의 슬픔을 위로하며 아우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祭亡兒文」에서는 亡兒의 俊偉한 자질과 英邁한 기상과 敏達한 학식과 遠大한 뜻이 제대로 발휘되

지 못하고 죽은 안타까움을 세상의 이치로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로는 ‘말과 뜻이 하나를 이루는’ 기법을 사용하여 형식과 내용에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게 함으로써 문장을 생동감 있고 확연하게 하고 있는데, 「亡弟再葬祭文」을 再期日을 맞이하여 갑자기 무심했던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역시 「亡兒初葬祭文」에서도 農巖은 亡兒의 初期日을 맞이하여 亡兒의 어릴 때의 일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사물에 뜻을 담는’ 기법을 사용하여 物象과 情意가 融合된 明麗하면서도 深遠한 독특한 경계를 구성하는데, 「亡弟再葬祭文」에서 農巖은 죽음을 보내는 절차에 따라 亡者에 대한 감정도 변화하고 있으며, 「祭亡兒文」에서는 장사지내려는 택지의 위치를 통하여 父子間의 두터운 정을 표현하였고, 이어서 부자간의 떨어질 수 없는 天倫의 정을 다시금 亡兒의 묘혈을 잡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였다. 한편 「祭靜觀先生文」에서는 선생의 묘를 移葬하려는 장소를 통하여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정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있다.

散文의 일반적인 기능은 實用에 있다. 특히 祭文은 죽은 사람의 靈前에 말하는 글이다. 따라서 그 주안점은 당연히 추모와 슬픔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문장가의 아름답고 화려한 글 솜씨가 있더라도, 내용에 슬픔이 결여돼 있거나 죽은 자와 산 자로 하여금 절실한 슬픔을 느끼게 할 수 없다면, 이는 죽은 글이다. 그렇다고 노골적이고 사실적으로 슬픔을 표현한다면 이는 글이 천박해질 뿐이다.

農巖의 祭文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철저히 슬픔에 그 주안점을 두었고, 다양한 문장기법을 통하여 슬픔에 대한 노골적이거나 사실적인 표현이 전혀 없으면서도 산 자와 죽은 자가 하나가 되고, 함께 흐느끼며 슬픔을 주체할 수 없게 한다.

<參考 文獻>

金昌協, 『農巖先生文集』.

——, 『農巖集』, 『韓國文集叢刊』 161, 민족문화추진회.

——, 『農巖集』, 『韓國文集叢刊』 162, 민족문화추진회.

金澤榮, 『麗韓十家文鈔』.

——, 『重編燕巖集』.

徐師曾, 『文體明辨』.

姚 鼐, 『古文辭類纂』.

劉 勰, 『文心雕龍』.

韓章錫, 『眉山集』.

金相洪, 「進士 朴南壽의 哀祭文學 研究」, 『漢文學論集』 第12輯, 槿域漢文學會, 1994.

吳錫環, 「農巖의 哀祭類 散文文學 小考」, 『漢文學論集』 第15輯, 槿域漢文學會, 1997.

——, 「農巖 哀祭類 散文文學 研究」, 『한국 고문의 이론과 전개』, 태학사, 1998.

Abstract

*The sentence technique research which appears from 『Jaemoon』
of Kim, Chang-byeop (Nong-am) / Oh Seok Hwan**

Most mind the writing which gets up an impression will be a writing of Ajearyu in shrine of the dead people informs from the sentence middle which the person makes. The sentence of Ajearyu cherishes memory with the writing which sends to the soul of the dead person the person who is living and will can comfort to collect and the contents is sad because is to put has not been extremely sad.

Jaemoon of ancient times sacrificial offering the rank made a work with the thing, but to Jaemoon of medieval after that praised the thing and the conduct which says from together. Ancestry will put on that informs a various numerical formula must contribute to a truth than make descend. With sincerity being sad, as the essence did.

The works which from here presents with the master piece of Nongarm's Jaemoon about the child whom all him loves most and the teacher and the sibling are the writing. That much because like that will be able to guess the fact that he will put the heart and soul. He uses a various branch technique from this writing and also the self between does not know letting with the person and naturally to being sad is doing to make fall into.

He uses technique of 'Cherishes and does not distinguish' first from sentence technique and a fact entirely with the expression which is simple and he does not distinguish not to be he is emphasizing more.

Uses techniques of 'Controls the spirit of sentence freely' and second time

* Visiting professor of Chosun Univ. / gosan-man@hanmail.net

piles up, inserts, repeats a same phrase, or on intermediate center an intonation.

Uses techniques of ‘with end the intention forms one’ at third and what kind of difference does not to make be does not exist to, form and matter with sentence there is animation and feeling is doing definitely.

Used techniques of ‘Puts in an intention in thing’ at fourth and the form and intention of the object amalgamated composed the guard which is unique desires neatly finely.

The function which prose is general is to a utility. Specially Jaemoon is a writing which informs in shrine of the dead people. Consequently the importance, justly cherishing the memory of a deceased person and is sad. No matter how superior door marriage to be beautiful there is a writing skill which is gorgeous but being sad in contents, this lacked, letting is earnest with the dead person and the person who is living being sad and if there is not a possibility of doing to make feel, this the gruel is the writing. That is like that, outspoken and factually being sad, if expresses, this the writing is only will become shallowly.

Jaemoon of Nongarm when from like this viewpoint seeing, thoroughly to being sad, the importance, the sentence technique which is various leads and is about outspoken, or there will not be expression which is factual entirely, will buy with the person to become own one dies, will sob together and does there not to make be a possibility which will endure.

【Key words】 affection, repetition, sorrow, logic, change

투고일 : 5월 9일, 심사일 : 5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3일
--